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'16년 12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2. 6 (화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
담당과장	김종철 철강화학과장 (044-203-4280)	담 당 자	이재석 사무관(044-203-4285)

산업부 차관,
철강산업 사업재편 및 고부가 철강재 투자 독려

-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, 충남당진지역을 방문하여 철강업계 간담회 개최 및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시찰

□ **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**은 **12. 6. (화) 충남 당진지역**을 방문, **당진소재 철강업계 간담회와 현대제철 면담,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.**

○ 이번 방문의 목적은 지난 9.30(수)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**「철강산업 경쟁력강화방안」**의 후속조치 점검의 일환으로, **국내 철강산업 중심지역 중 하나인 충남 당진**의 현지 공장 등을 방문한 것이다.

1. 당진지역 철강업계 간담회

□ **(개요)** 정 차관은 **어기구 국회의원**(충남 당진), **김홍장 당진시장**과 함께 **당진 지역 철강업계 대표 등과 간담회**를 갖고, **『철강산업 경쟁력강화방안』의 후속조치**에 대해 논의하고, 업계의 애로사항 들었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○ **(일시/장소) 12.6**(화) 14:30～15:20 / 당진 상공회의소

○ **(참석)** 정만기 차관, 어기구 국회의원, 동부제철 · 대한철강 · 환영철강 · 휴스틸 · 대한내화 · 대한전선 등 6개사

□ **(모두발언)** 정 차관은 **글로벌 공급과잉,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대**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,

○ 후판, 강관 등 **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사업재편**과 미래가 유망한 **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**가 필요함을 강조했다.

○ 정 차관은 **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**, 철강업체들의 노후설비 매각, 고부가설비 투자에 대해 **기활법 신청이 증가**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 **사업재편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 관심을 주문**했다.

* 기활법 승인 기업: 하이스틸(강관, 10.19), 현대제철(전기로, 11.22), 동국제강(후판, 11.22), 우신에이펙(비철금속, 11.22)

○ 아울러,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(12.1)되어,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**타이타늄 · 알루미늄** 등 **경량소재 연구개발(R&D)**에 대한 업계의 참여를 당부했다.

* 경량소재 연구개발(R&D) (항공용 타이타늄, 미래차용 알루미늄, 총 510억 원 반영)

□ **(업계입장)** 조선, 자원개발 등 **수요산업 침체**로 인해 어려운 경영 현황을 언급하고, **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** 등을 설명했다.

○ 이와 함께, 국제적 **온실가스 규제 강화**에 따른 **애로사항**과 당진지역 **산업단지 인프라 확충** 등에 대해 건의했다.

2. 현대제철 면담 및 시찰

□ **(개요)** 정 차관은 어기구 의원과 함께 **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**하여, **강학서 현대제철 사장과** 철강업계의 **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**과 **연구개발(R&D) 및 투자 계획**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○ 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**초고장력 강판 등 고부가철강재 생산**을 위해 **약 8,11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시행**중이며, 알루미늄·탄소섬유 등 **경량소재 연구개발(R&D)**에도 내년까지 **300억 원**을 투입할 계획이다.

* 현대제철 설비 투자 : 자동차강판 고도화(3,100억 원), 초고장력강 (2,650억 원), 열연제품(70억 원), 형강(400억 원), 단조(1,590억 원)

○ 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후발국과 격차 축소 등으로 **우리 철강산업**도 범용 제품보다는 **고부가 철강재·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**해야한다고 **강조**하며,

- 현대제철이 고부가 제품 설비 투자와 미래차용 핵심 소재인 **알루미늄 연구개발(R&D) 투자 의사**를 밝힌 점을 높게 평가했다.

- 아울러, 온실가스의 획기적이 감축이 가능한 **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**이라고 소개하고, 현대제철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

*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('17년 민관공동 125억 원 투입 예정)

□ **(후판)** 한편, 강 사장은 **조선 수주 절벽*** 등으로 **국내산 후판 수요 급감이 예상**되어, **고급후판 생산 비중 확대****, 해외건설·플랜트 동반 진출을 통한 **수출 확대를 추진** 중이라**고 말했다.**

* 올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글로벌 선박발주량 71%↓, 국내 수주량 83.7%↓
* 고급후판(TMCP, 박물, 극박 등) 비중 확대시 제품 생산시간 증가로 실질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감소되는 효과

○ 정 차관은 이에 대해 **후판 수출 시장 다변화, 공공선박 조기 발주**를 통한 **고급 후판 신규 수요 창출**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.

□ **(현장시찰)** 정 차관과 어기구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**당진제철소 고로, 원료돔 등**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재석 사무관(철강, ☎ 044-203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